

현 상황에서 수업방식에 대한 대학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의견

(2021년 4월 16일)

1. 현 상황에서 수업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가?

-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성대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교외 활동에서 획득된 감염일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기숙사 룸메이트 간의 전파 외에 수업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.
-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학생생활이 3 학기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내에서 집단발생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현재처럼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 제로 혹은 학생들 사이 전파 제로 보다는 원내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다만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전환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수업에 대해서는 일부 온라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2. 수업 외 활동

- 오프라인 수업 자체보다 수업 외의 활동이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따라서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수업 외의 활동 시 원칙 준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발생하는 수업 외의 활동에서 원칙 준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
-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접촉이 늘어나므로 (특히 수업외 만남) 학생들 사이 전파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원칙 준수 및 유증상 학생에게 검사를 잘 받도록 한다면 학교에 부담을 주는 집단 감염 사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
- 동아리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표면 소독 등의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- 학생들끼리의 식사 시에도 신속히 식사를 마치고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5 월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 실내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학교 구성원(특히 대학원생)이 식사나 휴식시간에 실내보다는 개방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늘막이나 임시 테이블 벤치같은 공간을 실외에 확보해 주는 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